

“소나무는 운명이었죠”

‘소나무 작가’ 배병우 사진전
광주시립미술관 6월 21일까지

여수 앞바다는 영감의 원천
오지호 선생 모습도 생생
평생 하나라도 완성해야지
작가들 유행만 따라 아쉬워

여수 출신 사진작가 배병우(65)는 철갑을 두른 소나무만큼이나 단단한 사람이었다. 누구나 카메라를 들지만 아무나 찍을 수 없는 풍경을 담은 그의 사진만큼 작품에 대한 열정이나 그 안에 녹아 있는 철학이 배병우를 그만큼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다.

19일부터 오는 6월2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제 1, 2 전시실에서 열리는 ‘배병우-섬과 숲 사이’전 개막에 앞서 ‘소나무 작가’ 배병우를 만났다. 이번 전시는 여수시가 공동주최한다. 올해는 배병우가 카메라를 들고 소나무를 비롯해 한국의 자연을 담은지 꼬박 45년이 되는 해다.

그는 “제가 고향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라며 “이번 전시는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입을 열었다.

국내를 대표하는 사진작가인 배병우는 평생 한국의 자연을 은유적으로 바라보며 조형적 아름다움을 지닌 사진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른 새벽 안개 속, 흑백 톤의 소나무는 특유의 거친 철갑을 드러내며 강인한 생명력과 인고의 시간을 느끼게 한다. 배병우는 소나무뿐만 아니라 섬과 바다, 제주 오름, 종묘 등을 작품에 담아왔다. 그가 처음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 것도 고향을 연상시키는 바다였다.

“난 본능적으로 바다가 좋다. 소나무가 아버지라면 바다는 어머니이다. 나에게 바다는 고향이고, 나의 영감의 원천이다. 내 생애 감수성의 뿌리도 우리나라의 섬과 바다다. 내 아버지는 생선 장수였다. 그래서인지 바닷가는 어렸을 때부터 내 삶의 일부였다. 그러니깐 제일 먼저 바다를 찍었다. 내가 이른 새벽녘 작업을 하는 이유도 이른 아침 바다로 향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해 뜨기 전 안개와 섞여 있는 광선의 미묘한 느낌을 담은 소나무 사진은 그렇게 탄생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향 앞바다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다. 그는 당시 여수 앞바다에서 작품을 그리던 오지호 선생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다. 때문에 섬과 바다는 그의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됐다. 수평선과 힘찬 파도, 저 멀리 섬



‘소나무’



들은 그를 자연스레 자연으로 이끌었다. 학창시절 그는 광주일보가 주최한 호남예술제 미술부문에서 최우수상 없는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가 소나무를 마주한 것은 1983년, 한국의 경제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부터다. “나는 서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그의 표현처럼 배병우는 그때부터 전국 방방곡곡 섬과 바다 그리고 소나무를 찾아다녔다. 유독 경주, 그중에서도 남산과 토함산 소나무 숲의 나무들이 그를 사로잡았다. “소나무여도 다 같은 소나무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변산반도에도 아름다운 소나무가 많다. 이전 당시 나라에서 배를 만들기 위해 심은, 용도가 있는 소나무다. 신라시대에는 왕릉 주변에 소나무를 심었다. 죽은 사람이 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문인 셈이다. 그게 내가 말하는 ‘인내전’이다. 현재 남아 있는 20여 개가 넘는 왕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나무 숲을 지나야 한다. 경주의 소나무는 사람의 경배를 받는 나무다. 성스러운 숲이다. 소나무는 대부분 200년을 살지만 그 자손들이 자라면서 천년을 이어왔다. 그게 경주의 소나무다.”

배병우는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등을 아시아 최고의 조각이라고 표현했다. 최근에는 석굴암의 재료를 재취했던 토함산을 주로 찾는다. 그는 그 안에서 선조의 흔적을 찾으면서 기쁨을 얻는다고 했다.

작품 밑에 그가 쓴 ‘남산과 토함산은 신라의 장인에게 영롱한 새벽이슬이 영감을 주었다’, ‘나무는 태생이 바르지만 세상의 흐름에 맡겨 이렇게 지낸다’라고 적은 글귀가 예사로 보이지 않았다.

글귀를 읽으며 돌아본 그의 전시장에는 생명의

기운들이 느껴졌다. 소나무의 향기가 콧등을 스치면서 차분해지는 듯했다. 느껴졌다. 소나무를 지나 발걸음을 옮기면 그가 미술관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커다란 스크린 영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가 찍은 사진들을 영상과 음향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그리고 남도의 바다와 제주의 오름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신안, 여수 등 그의 남도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들이 산수화처럼 다가왔다. 스무 살 때부터 전국의 섬을 돌아다녔던 그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섬과 해변 10개 중 절반이 신안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안 흥도에서 등대 쪽으로 올라가면 아름다운 소나무가 많다. 우리는 가기는 하지만 걷지는 않는다. 걸어서 들어가면 쉽게 만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된다. 걷지 않아서 보지 못한다. 그런 풍경들이 세계적이다.”

그는 소나무를 운영처럼 받아들였다고 했다. 평생 하나라도 완성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다.

“나이가 들면서 작품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작품이 변하는 것은 느껴진다. 우리나라 작가들이 너무 유행만 따라가는 것 같아 아쉽다. 평생 동안 단 하나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배병우는 이번 광주 전시를 준비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둘러봤다.

“처음에는 왜 하드웨어에만 돈을 그렇게 들여야 하나라고 생각했다. 기술적, 정치적 문제는 모르겠다. 정말 기가 막힌 공간인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는 물론 국가적인 행사들을 그곳에서 하면 좋겠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배병우 작품집 제작도 사진미술관 건립도 신안군수 바뀌며 취소

신안군이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여수 출신 배병우 작가와 함께 작품집을 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수가 바뀌면서 계획을 취소했다.

19일 배병우 작가와 신안군에 따르면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지난 2012년 건립을 추진하던 사진미술관에 전시할 콘텐츠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배 작가에게 신안의 섬과 바다를 찍어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고 활동하고 있는 배 작가의 작품을 통해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신안을 홍보하겠다는 목표였다.

배 작가는 프로젝트 추진 비용으로 1억 원을 받고 지난 3년 동안 신안 증도, 자은도, 비금도, 흑산도, 흥도 등을 돌며 바다와 섬의 비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배 작가는 이 과정에서 신안군으로부터 작품집 제작과 작품 구입을 구두로 약속받았다.

특히 ‘술섬’ 사진으로 유명한 마이클 케나도 배 작가의 추천으로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신안군은 지난 2012~2013년 1억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작품집을 제작하고 작품 20점을 구입했다. 작품집 제작과 함께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배 작가는 “지난해 말 3년간 찍은 사진 20여 점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작품집 제작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고길호 군수를 만났다”며 “고군수가 그 자리에서 작품집 제작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군수가 사진도 보지 않고 ‘아마추어 사진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더 좋은 사진들이 많겠다’고 말해 작가로서 모멸감을 느꼈다”며 “전임 군수의 계획이라 작품도 보지 않고 반대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배 작가의 작품집 제작을 위한 예산 9000만 원도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두 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3년 시작해 오는 2016년 완공하려던 사진미술관 건립 계획도 중단됐다. 60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마이클 케나의 작품도 수장고에서 낯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당시 배 작가가 군수와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배 작가가 신안의 아름다운 풍광이나 주민들의 생활상 등 그런 부분들을 작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코미디언 김병조의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행복’

오늘 월봉서원서 강연

코미디언이자, 조선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인 김병조 씨가 20일 월봉서원에서 강연한다.

광산구 주최, 교육문화공동체 ‘결’ 주관의 ‘이야기(이야기)가 있는 살롱 드 월봉’ 강사로 나서시는 김교수는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행복’을 주제로 청중과 만난다.

강연에 이어서 ‘월봉 요일마당’도 열린다. 요일마당은 유교문화활성화지원단 한범수 단장이 색소폰을 연주하고, 참가자들과 차를 마시며 뜻깊은 이야기로 강연의 여운을 이어가는 프로그램이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성균관 여성유도회는 차와 이야기기가 있는 다담(茶談) 시간으로,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는 ‘가야금 3중주’ 및 뱃노래 공연으로 분위기를 달군다.

2011년 시작된 ‘살롱 드 월봉’은 월봉서원 대표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7시 열린다.

2015년 문화재청 주최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된 월봉 서원은 살롱드월봉, 선비의 하루, 꼬마철학자상상학교, 청소년理氣진로교실, 2030청년선비문화원정대, 철학자의부위, 드라마원타자, 서원마을관광상품만들기 프로젝트, 고풍문화제, 고풍학술대회 등 9개의 프로그램 운영 중이다. 문의 062-960-8272. /김미은기자 mekim@

알토 색소폰 짐 스니데로 광주 공연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영화 ‘위 플래쉬’를 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라이브 재즈 연주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다. 세계적인 재즈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전 세계 재즈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알토 색소폰 주자 짐 스니데로가 광주에서 공연을 갖는다.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지역문화예술협동조합 ‘그라운드 G’가 기획한 공연이다.

인디애나 대학 교수인 짐 스니데로는 프

랭크 시나트라, 밍 거스 등과 활동하는 아티스트로 ‘알토 색소폰의 거장’, ‘마스터 음악가’로 불리는 연주자다. 또 ‘재즈 컨셉션’ 시리즈 등 재즈 관련 책도 집필했다.

이번 공연에는 재즈 피아니스트 폴 커비(백제예술대 교수), 베이스 연주자 손 팬트랜드(백제예술대 교수), 드러머 김운찬 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짐 스니데로는 19일 호남신학대에서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했다. 문의 070-8726-5222. /김미은기자 mekim@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사업 공모 광주문화재단, 25일까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은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원하는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10개 장르(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국악, 영화, 사진, 서예, 미디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문화예술 동아리는 최소 7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회원 10인 이상,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동아리로 9~10월에 개최하는 ‘동아리 한마당’에 참가가 가능해야 한다. 문의 062-670-7465. /오광복기자 kroh@

착하고 정직한 피겨러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피겨러리 X 파일

MC 김진 채널A기자

매주 금요일 밤 11시

http://tv.channela.com/culture/fit 02 2020 3333-4

CHANNEL A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